

2013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I)

소속 학교	고등학교	수험 번호	성 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정은 삶의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걱정과 대립되며 오히려 삶에 대해 억압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동정할 때 힘을 상실한다. 힘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삶에 피로움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동정에 의해서 그것은 더욱 더 증대되고 더욱 더 복잡해진다. 피로움 자체는 동정을 통해서 전염성을 지닌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 때문에 원인에 비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고통의 양이 증가되어 삶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손실될 수도 있다.

나아가 동정이 항상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반작용을 측정해본다면 삶을 위태롭게 하는 동정의 성격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체로 동정이란 발전의 법칙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몰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보존하려 한다. 동정은 삶의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 삶의 죄인으로 규정된 자를 위해서 싸운다. 동정이 삶 속에 온갖 종류의 폐잔병을 가득차게 함에 따라 동정은 삶 자체에 암담하고 기괴한 모습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일부러 동정을 하나의 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모든 고귀한 도덕에 있어서는 동정은 허약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나아가 사람들은 동정을 덕 그 자체로 여기고 모든 덕의 토대와 근원으로 삼았다. 물론 그런 관점은 허무주의적인 철학, 삶의 부정을 그 간판으로 내걸었던 철학적 견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정당하다고 본다. 동정에 의해서 삶이 부정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한층 더 부정당할 만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동정은 허무주의의 실천인 것이다. 그와 같은 억압적인 전염성의 본능은 삶을 보존하고 삶의 가치를 고양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본능을 가로막는다. 동정은 비참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든 아니면 모든 비참한 인간을 보존시키는 방식으로든 퇴폐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주된 도구이다. 동정은 허무를 설복시킨다. '허무'를 말하지 않고 대신 '피안(彼岸)'이라고 말하거나 '신'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진실한 삶'이라고 말한다. 또는 '열반(涅槃)'이나 '구원' 또는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종교적·도덕적 특질의 영역에서 나온 이러한 사사로움 없는 수사도 그러한 숭고한 말의 외투 속에 어떤 경향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이해한다면, 그다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즉 그것들은 삶에 대한 적의(敵意)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동정이 덕으로 되었던 것이다.

[나] If we think of a caring person as having a virtuous disposition* instead of as engaging in a caring relational practice, we are likely to overlook the feelings of the person who is taken care of. To continue to have strong feelings of affection for someone who does not want those feelings but wants rather to be left alone, can be a failure of care. It fails to constitute a caring relation. On the other hand, a young person trying to distance himself from an overly concerned parent may actually welcome continuing affection despite the appearance of disdain** it. Both parent and child may acknowledge that the solid caring relation needs reinterpretation to allow for greater mutual understandings.

Another limitation lies in seeing care as a virtue when we ask how caring should be. The person who tries to be caring but is instead selfless to the point of lacking self-respect, can be criticized as failing to have the necessary virtue. The servile housewife, the martyr*** mother, aspire to virtue but miss it. The servile housewife contributes to the macho husband and tyrant father who disdain her. The martyr mother produces children who face the world presuming they deserve deference. The person who participates in an admirable practice of care will not only respect himself or herself but will foster mutual respect and mutual autonomy.

* disposition 성향, 기질 ** disdain 경멸하다 *** martyr 순교자

[다] 공통의 인간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익집단이 동정심을 통해 단단하게 뭉쳐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동정심이 이해관계의 공동체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여기에는 기본권의 토대로서 동정심이 갖는 한계가 암시되어 있다. 동정심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원천으로서 동정심에 내포되어 있는 이 같은 난점은 린치행위 사례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과거 미국 남부에서 흑인에 대하여 린치를 가하는 관습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지위 향상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이었다. 린치를 가하는 관습은 1960년대 초까지 남부 사회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었다. 린치행위는 사회체계의 일부로서 흑인들이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압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흑인들은 린치를 당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처럼 린치행위가 사회통제의 관례적인 수단처럼 작용하는 상황에서, 흑인의 기본권에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린치에 반대하는 일부 백인들이 있었다. 이들의 동정심은 짧게나마 상당한 정도로 누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흑인에 대한 백인의 동료의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백인 사이에 퍼져있는 동정심조차 사실상 흑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린치행위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린치를 가하는 백인 폭도들에게 대항하여 흑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었다. 경찰서와 같은 법적 보호장치에 호소할 경우 폭도들은 이를 흑인의 권리 주장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린치 폭력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린치가 가해지는 동안에 흑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동정심을 보이는 '백인친구'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조차도 린치행위라는 관습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것이었고, 사회통제 체계 속에서 린치행위가 지속되게끔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 흑인이 백인의 동정심에 의지하는 것은 백인의 우월성과 흑인의 굴종 모두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동정적인 '백인친구'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흑인은 자신의 권리가 백인의 권위와 후견 하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백인에게 입증해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이를 확신시키곤 했다. 백인의 동정심에 신세를 진 흑인은 린치행위를 포함하여 여하한 형태의 백인 지배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해야만 했다.

[라] 어떤 단어의 반의어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도 한다. '명랑'의 경우가 그렇다. 지금이야 누구나 명랑의 반의어가 '우울'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테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명랑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기원은 1930년대 총독부의 명랑화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독부가 내세운 도시 명랑화 정책의 경우, 이때 명랑의 반의어는 '불결, 불량, 오염, 범죄, 퇴락, 퇴보'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에 명랑의 반의어로 사용된 말은 그 외에도 더 있다. '불온 지대 명랑화'나 '소리판을 명랑케, 난잡을 배격'과 같이, 이 시기 명랑과 함께 자주 등장했던 말에는 '저급, 퇴폐, 난잡, 침울, 불온' 등과 같은 말도 있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총독부가 명랑화를 내세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총독부가 내세운 명랑은 '건전'의 동의어로서 체제에 저항하는 것들을 억압하고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만을 양성하기 위한 규율 담론이었던 것이다. 총독부는 식민지 경영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저급하고 난잡하며 퇴폐적이고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였다. 그와 반대로 체제 순응적인 감정과 가치는 모두 명랑이라는 코드 안에 편입시켰다. 그러자 명랑은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을 넘어 '좋은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윤리가 되었다. 총독부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우리의 생활을 명랑화하자'와 같은 주장을 외쳤고, 심지어 상품광고에서도 명랑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머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난 것도 이즈음이었다. '폭소 소설'이나 '명랑 소설'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던 유머 소설은 단편소설보다 짧은 분량에 즐거움과 웃음, 명랑한 전망을 담은 가벼운 읽을거리였다. 1930년대 들어 신문과 잡지 등 대폭 늘어난 매체들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중의 기호와 정서에 영합하는 선정적이고 가벼운 내용의 비중이 늘 수밖에 없었다. 유머 소설이 193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창작된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매체의 상업성이 강화된 것이 유머 소설이 유행하게 된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1930년대는 도시화, 자본주의화, 대중문화의 형성 등 근대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인 동시에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난과 실업난이 가중되고 침략 전쟁을 위한 일제의 통제가 강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명랑은 식민지인과 근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 되었지만, 정작 실제로 명랑해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명랑이라는 허울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깊은 절망과 우울이 조선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강요된 웃음과 절망적 현실이라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당시 대중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유머 소설은 잠시나마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도피처였다.

[마] 천하의 강산은 크고 고금의 세월은 유구하구나. 인간사의 가고 옴은 하나도 같지 않고 생물은 형형색색 만 가지로 같지가 않다. 산은 본래 하나이나 만 갈래로 흩어져 서로 다른 산이 생기고, 물은 만 줄기가 끝내 하나로 모인다지만 일만 굽이가 다르다. 하늘로 날고 강물에 잠긴 동식물의 기이한 형상도 그 같고 다름이 조화의 자취가 아닌 것이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받아 만물보다 사랑스럽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다름, 능력의 높고 낮음, 식견의 크고 작음, 오래 사는 자와 요절하는 자, 가난한 자와 부귀한 자로 나뉘어 서로 같지가 않다. 때를 얻어 임금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쳐 이름이 역사에 남는 사람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나 귀한 구슬을 지닌 채로 초목과 함께 썩은 사람도 있다.

이중에 여자는 발이 규방(閨房)의 문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술과 음식 만드는 일만을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옛날의 성현이었던 문왕과 무왕, 공자와 맹자의 어머니에게는 모두 성현의 덕이 있었고 또 성현을 낳아 이름이 만세에 드러났다. 이렇게 빛나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찌 여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없겠는가? 큰일을 이루지 못하면 규중에 갇혀서 문혀 그 충명함과 식견을 넓힐 수 없고 끝내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나는 본래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 스스로를 금원(錦園)이라 호를 지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어여뻐 여겨 글을 가르쳐주시니 몇 년이 되지 않아 경서와 역사서를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고 고금의 문장(文章)을 본받고 싶어져서 이따금 흥이 날 때마다 꽃과 달을 읊조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태어날 때 금수(禽獸)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오랑캐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文明)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된 것은 불행하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한미한 가문에 태어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미 나를 낳았으니 어찌 홀로 요산요수(樂山樂水)하여 보고 듣는 것을 넓힐 수 없겠는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 걸고 사는 것이 옳겠는가? 한미한 집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아아! 내 뜻은 결정되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수(沂水)에서 목욕하며 바람을 쐬고 글을 읊었던 증점(曾點)을 본받는다면 성현들께서도 또한 마땅히 장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니 한참 뒤에 내 뜻을 허락해주셨다. 이에 가슴이 툭 트이는 것이 마치 매가 새장에서 나와 곧장 하늘로 날아가는 듯하고 천리마가 재갈에서 풀러나 천 리를 치닫는 듯했다. 그 날로 당장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꾸려 먼저 충청도의 네 고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바] 수용소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아름다운 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뒤러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공장을 짓는데 동원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소로 가서 해질녘의 멋진 풍경을 보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구름 사이로 새파란 빛과 핏빛 하늘의 조화가 신비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반사된 하늘빛의 조화는 칙칙한 분위기의 초라한 임시막사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감동의 물결이 잠시 요동친 후 누군가 외쳤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어느 날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녀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 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으며,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에 그림처럼 서 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의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구나.”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고, 나는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어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 1 제시문 [가]의 ‘동정’에 대한 시각을 통해 제시문 [나]에 나타난 ‘돌봄(care)’의 행위를 분석하시오. [30점]
- 2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을 요약한 후, 그것을 토대로 감정의 역할이 지닌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30점]
- 3 아래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40점]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는 ‘사냥터지기’의 자세와 ‘정원사’의 마음가짐이 있다. 사냥터지기의 주요 임무는 관리하도록 맡겨진 땅을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른바 땅의 자연적 균형, 즉 신이나 자연의 무한한 지혜의 체현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의 임무는 그런 자연의 균형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밀렵꾼의 덫을 찾아내 못쓰게 하고 낫선 불법 사냥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냥터지기의 일은 만사는 어설피게 손댈 바에야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사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원사는 자기가 가꾸는 정원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자라야 하고, 어떤 식물이 자라야 안 되는지 더 잘 안다. 그는 우선 머리에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 다음에 정원을 그 이미지에 맞춘다. 그는 적합한 종류의 식물들을 성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식물들, 즉 이제는 ‘잡초’라 개명된 것들은 뿌리를 뽑아 버림으로써 대지에 자신이 미리 생각해 놓은 디자인을 실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답안지(인문 I)

※감독위원 확인란

소 속 고 교

성 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예:930512)

A	A	0	0	0	0	0	0
B	B	1	1	1	1	1	1
C	C	2	2	2	2	2	2
D	D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0	0	0	0	0	0
1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문제1번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1, featuring horizontal dashed lines.

문제2번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2, featuring horizontal dashed lines.

이 줄 위에는 답안 작성을 하지 말것

문제3번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problem.

이 줄 아래는 답안 작성을 하지 말것